

## 권두연

# 지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기대하며

금종수 / 부산·울산·경남 지회장

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jskum@pknu.ac.kr)



우리 학회의 지회는 1990년에 부산·경남지부의 창립이 효시가 된 후 10여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대전·충청지부, 대구·경북지부, 호남지부 등의 순으로 생겨났으며, 우리학회가 4개지회와 본회 소속으로 4300여명에 이르는 전국적인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 전국학회로 발돋움되어 왔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회가 생겨나서 지회 활동 주최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어자치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유익한 계획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회 회원들의 활동성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 일부는 보다나은 모임의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그와 같은 배경으로 4개지회의 사회인원, 이 대체로 지회에서 활동하는 임원들을 모시고 지회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그 결과는 지회 임원들의 지속적 노력부족, 지회 역할을 한 수 있는 체계 마련, 지회 활동 사례 미흡, 본회와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그나마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또한 그 대책으로 이전 학회연대회에서 제기된 지회 활성화를 위한 학회지인비 홍보, 만년 캘린더 판권 및 출판권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회 예산과 함께 지회 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회 활동 기획과 함께 지회 역할과 본회 역할을 확장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회활성화를 위한 애착을 뛰어나게 보여주는 지회 활동은,

### I. 결과 사회역할 확장화 기회 활용

이제 그간 학회에서 활동하는 지회 활동은 그 자체로 학회에 대한 이미지 확보와 함께 학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학회 상층부 차원에서 학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회 및 산하현역 학회는 전회기준 저작인원 확보 및 학회 대회 참석, 단체와 협력회원 강화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학회에 대한 이미지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이나 지금은 학회 대회 참석과 함께 학회에 대한 이미지 확보와 함께 학회에 대한 이해 확장이라는 목표가 더 중요해졌다.